

방역·탈선 사각 목포 빈집 급증 ‘골머리’

올해 293동 늘어 1403동 달해...80%가 원도심 편중
철거 시급한 E등급도 114동...예산 등 대책 서둘러야

목포시 관내 빈 집(공가)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빈 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장소로 악용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목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목포 관내 빈 집은 총 1403동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10동에서 올해 들어 벌써 293동(7월말 기준)이 증가한 것이다. 동별로는 유달동이 414동으로 가장 많고, 목원동(411동), 만호동(112동), 연동(82동), 용당1동(80동), 죽교동(76동) 등의 순이다.

이처럼 목포시 공가의 80%가 원도심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도심 공동화 현상의 가속화가 주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빈 집 1403동에 대한 안전등급 분류에 따르면 A급 377동, B급 348동, C급 310동, D급 254동, E급 114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E급인 114동은 상태가 매우 불량해 철거가 시급하지만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빈 집 한 채를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800만~1200만원대로, 목포시는 2014년과 2015년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각각 6동과 8동을 철거하는 데 그쳤다. 올해는 1억원을 들여 5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E급 114동을 철거하는 데만 20여년이 소요될 수

■ 목포시 빈집 현황 (2016년 7월말 현재)

행정동	빈집	행정동	빈집
용당1동	80	죽교동	76
용당2동	27	북항동	5
연동	82	용해동	24
산정동	58	이로동	6
연산동	-	상동	16
원산동	3	하당동	-
대성동	61	신흥동	-
목원동	411	삼향동	20
동명동	58	옥암동	-
삼학동	3	부흥동	-
만호동	112	부주동	-
유달동	414	합계	1,456

밖에 없어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인근 자치단체인 광주시 등은 도심 속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빈집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시의회 최기동 의원은

“어름철을 맞아 이들 빈집이 방역 사각지에 놓이는 등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에서는 목포시 전체 공기환경을 제대로 파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방역 등 관리를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원은 “빈 집은 대다수가 사유재산으로 소유가 동가의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상태가 불량한 E급 114동에 대해서는 이른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는 등 노후 빈집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별법’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지자체가 빈집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빈집에 대한 정의도 일원화될 전망이다. 또 빈집 정비에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아예 철거하거나 주차장소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기자 노트

이번엔 목포 대표 음식 선정될까



임영준 사회2부 기자

목포를 대표하는 음식을 선정하라는 박홍률 목포시장의 특별 지시가 떨어졌다. 예로부터 목포는 예향이면서도 맛의 고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지역이다. 이는 항구 도시 특성상 신선한 해산물과 수산물이 풍부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목포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부터 즐기게 대표 음식 선정에 요구하는 여론에도 15년이 넘도록 선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조직을 장악하는 ‘카리스마’가 넘쳐났던 전임시장 시절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만 봐도 짐작이 가고 남는다. 선정할만한 대표 음식이 없어서 고민 중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목포는 봄 도다리·깡다리·병어, 여름 민어, 가을 낙지·전어, 겨울 홍어 등 목포하면 곧바로 연상되는 계절음식들로 가득하다. 되레 너무 많아서 딱히 대표음식을 고를 수 없을 정도다. 그동안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시장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대표 음식 선정할 것을 요구했고

지적도 했지만 구멍이 담 넘어가듯 세월만 보냈다. 심지어 한 시의원은 ‘목포, 구미 당기는 9미 맛보러 목포로 가세’라는 슬로건까지 제시하며 촉구했지만 소구에 경미기였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박시장의 특별지시로 관광경제수선국과 보건소가 합동으로 대표 음식 선정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2일 폐막한 항구축제를 방문한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전국 각지의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또 앞으로 국내 유명 블로거와 예술인들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어서 최소한 10월 중에는 대표 음식이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가설치를 앞두고 목포 대표음식 선정은 관광목포의 돌파구를 찾는 단초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목포 대표음식 선정에 늦춰선 안 된다. 이번만큼은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하는 이유다. /lyc@kwangju.co.kr

원도심서 즐긴다, 100개 공연·시민 참여행사 25~28일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6개국 11개 팀이 참여한 해외공연, 국내 우수공연 등 모두 100여 개에 달하는 공연과 참여행사가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국내 공연인 ‘태양의 조각’ 한 장면.



100여 년의 숨결이 담긴 목포의 골목을 참가자들과 함께 투어하는 역사의 골목 여행 모습.

거리가 살아 숨 쉬는 신명난 축제 한마당인 ‘2016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원도심 일대에서 ‘계(契) 타는 날’이라는 주제로 성대하게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6개국에서 11개 팀이 참여하는 해외공연과 국내 우수공연, 예향 남도공연, 기획 이슈, 부대행사 등 모두 100여 개에 이르는 공연과 참여 행사가 나흘 동안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 2014년 처음 진행했을 때부터 인기를 끌었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기획 이슈는 올해 ‘우리는 로컬리스트다’를 주제로 역사의 골목 여행 ‘만복동 아리랑’, 시민이외국 ‘우리 읍내’, 뱃길 따라 갯변 마

당놀이, 커뮤니티댄스 ‘밀라노에 간다’ 등 총 4개의 로컬 프로그램을 짜여졌다. 오는 27일 오후 4시 출발하는 역사의 골목 여행 ‘만복동 아리랑’은 100여 년의 숨결이 담긴 목포의 골목을 참가자들과 함께 거닐며 전시, 퍼포먼스, 콘서트, 체험 등 오감을 체험하는 골목여행이다. 구 광생의원에서 출발해 죽동 공나물골목과 마인게터 골목, 조선인 우체국 터까지 골목여행을 한다. 골목에서는 꼭두인형 골목강아지 공연, 낭독공연, 골목콘서트, 이발퍼포먼스, 골목 화분전시, 여행자 전시회 꾸미기 등이 곁들여 골목미학을 선사한다. 참가자의 여행후기를 미술품으로 만들어 노라노 미술관에 전시하는 전시회도 마련된다.

또 시민이외국 ‘우리읍내’는 목포시민 배우들이 직접 제작한 공연으로 폴리처상을 수상한 손튼 외와일 원작을 목포근대역사로 전면 개작한 작품이다. ‘뱃길 따라 갯변 마당놀이’는 섬 문화 프로젝트로 완도생일도의 발광대놀이, 진도 소포리의 민속놀이, 신안비금도의 씨깡굿이 무대에 오른다. 완도생일도의 발광대놀이는 발에 광대를 씌우고 노는 놀이로 50여년 만에 부활하는 공연으로도 관심을 끈다. 진도 소포리는 만가, 강강술래, 진도북춤, 소포농악 등이 전승된 곳으로 다양한 민속놀이와 체험으로 관객과 함께 호흡한다. 신안 씨깡굿은 전남도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유점자 명인이 신안 비금도 사립

들과 제자들이 함께 씨깡예술의 진면목을 선사한다. 커뮤니티 댄스 ‘밀라노에 간다’는 목포의 중년여성들이 4개월 동안 모여 만든 공연으로 꿈과 열정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자너교육, 남편바라지, 집안일, 직장에 쫓겨 문화선택권을 강탈당한 엄마들의 반란과 도전은 밀라노로 여행을 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 28일 밤 9시 구국민은행 앞에서 공연된다. 한편 올해로 16회째인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민간예술축제로 지역문화발전에 공헌해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원사업 대표공연 예술제로 3년 연속 선정과 함께 2년 연속 A등급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목포=임영준 기자 lyc@

목포 의료기관 수액 유통기한 준수 여부 전면조사

목포시보건소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액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최근 목포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 투여에 사용기한이 두 달여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5일 목포시보건소에 따르면 16일부터 31일까지 12일 동안 종합병원 5곳, 병원 12곳, 요양병원 11곳 등 28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유효기간을 경과한 수액 사용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수액은 병원에서 관리하며 사용하기만 이 지나면 곧바로 폐기하도록 돼있다.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이 환관을 통해 몸으로 들어가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개설자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의료기관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한다. 김연다 목포시 보건소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부실 관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위반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의거 엄정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4개 시·군 연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목포~무안~영암~신안을 연결하는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이 이달 말 완료된다. 이번에 준공되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은 4개 시·군 일반 및 광역버스 노선으로 총 연장 109km에 달한다. 사업비는 목포시 4억1300만원, 무안군 4억원, 영암군 2억6500만원, 신안군 2억5400만원 등 총 13억3400만원이 투

입됐으며, 정류소 안내기 64대, 차량단말기 89대 등이 설치됐다. 박경연 목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거쳐 이달 말 준공할 계획”이라며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호-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